

사무엘상 20장 1-11절 말씀

- 01 다윗이 라마 나뭇에서 도망하여
요나단에게 이르되
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
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
- 02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
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
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니라
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
그렇지 아니하니라
- 03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
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
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
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와 살아 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
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
- 04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
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
- 05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
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
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
- 06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
그 때에 너는 말하기를
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
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
- 07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
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
- 08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
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
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
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
- 09 요나단이 이르되
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
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
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
- 10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
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
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
- 11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
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
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